뉴저지초대교회 **온라인 순모임**
제 4 과 (2020년 5월)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고린도전서 7:17-24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
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
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
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
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
나님과 함께 거하라

찬양 | 주 내 맘에 모신후에 (경배와 찬양 262),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

1. 마음열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돌아가며 나누어 봅시다.

2. 말씀열기
고린도전서 7:17-24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영상을 봅니다.

3. 질문
1) 우리는 각자 다른 직업, 다른 가정환경과 처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7절)

2)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7, 20, 24절)

4. 적용과 나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들판에 핀 꽃들의 색깔이 다양하 듯, 서로 다른 우리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면 세상은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 내 가정을 위해 나에게 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 내 직장에서 나에게 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 우리 지역에서, 교회에서 등등 나에게 준 부르심을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1. 나의 상황을 불평하기 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일터를 보호해 주시길,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

3. 교회의 예배가 힘을 잃지 않도록,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담임목사님의 건강 위해